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 아나키즘과페미니즘의불완전한결합

< 래디컬페미니즘재정의하기 > 에대한답변

레드소냐 (NEFAC-보스턴)

레드소냐 (NEFAC-보스턴)  
아나키즘과페미니즘의불완전한결합  
< 래디컬페미니즘재정의하기 > 에대한답변  
2002

Retrieved on 4 March 2011 from [news.infoshop.org](http://news.infoshop.org)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

2002

## Red Sonja

< 북동부아나키스트 > 4 호에 실린 트레이시 해리스의 < 래디컬페미니즘 재정의하기 > 라는 기사는 혁명적 페미니즘에 관한 토론의 기초발제였다. 나는 이 논쟁을 이어가고자 한다. 해리스의 기사는 이 논쟁에서 다루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드러낸다. 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1) 가부장제와 래디컬페미니즘을 혁명적으로 재정의해야 하고, (2) 지배의 형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드러내야 하며, (3) 실천의 영역에서 래디컬페미니즘을 재정의해야 한다. 나는 해리스의 주장이 다문화적 자유주의에 불과하고, 계급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고 바라본다. 해리스는 혁명적 페미니즘을 백인 우월주의를 공격하는 전략으로 (전략이라는 것부터가 문제적이다) 재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리스는 압제의 상호연결을 인지하는 분석을 지지한다. 혁명에 있어, 백인 우월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것이 여성에 대한 압제와 무슨 상관인가?

혁명적 페미니즘의 힘은 그 이론이 독자적인 분석과, 자체적 요구와, 여성을 착취하는 모든 사회·경제·문화적 방식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 아나키스트들이 계급체와 지배에 대해 분명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려 한다면, 흔히 “삼중억압”이라 불리는 것을 끝내려 한다면, 이 억압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혁명적 잠재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

< 래디컬페미니즘 재정의하기 > 는 캐론 패트먼을 빌어 가부장제를 “사회계약”에 기반한 권력의 정치체제”라 정의한다. 패트먼은 이 ‘사회계약’이 창조되었을 때, 여성의 예속과 남성의 통치가 확립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가부장제의 기원이 무엇인가는 논의의 핵심이 아니다. 남성에 의한 문명사회를 만들어 낸 것이 부르주아 혁명임은 분명하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에서 여성이 배제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할 역시 여성이 복종적 위치에 놓이게 한 것은 맞지만, 이 분할이 패트먼이 말하는 바 사회계약의 교섭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불명확하다. 하지만 사회계약의 ‘루소적’ 개념에 의존하여 여성에 대한 세계적 착취 현상을 설명하려 하지는 말자. 세계적이고 단일한 ‘가부장제’가 존재하여 세계적으로 사회·경제·문화적 관계들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 아래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여성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고, 여성의 억압에 대한 우리의 서구적 이해는 세계의 다른 영역에서 살아가는 인민의 삶을 담아낼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세계 각지에서 가장 낮은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그림은 이야기할 수 있고, 페미니스트들은 이 모순과 수십년간 씨름해왔다.

“제 2 파” 페미니스트들이 ‘가부장제’라는 말을 만들어 낸 이후, 페미니즘 운동은 이 단어의 불명확성에 고통받아왔다. 가부장제를 분쇄하고자 하는 혁명주의자들이 그 운동을 조직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다. 얼마 전 혁명적 아나키스트들은 가부장제라는 주제를 놓고 이틀간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 컨퍼런스에서 아나키스트들은 “가부장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그들은 가부장제라는 단어를 무엇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유용

있다. 왜수감자중흑인이거나히스패닉이고가난한소녀들이그토록빠르게늘어나는지를바라보아도유의미할것이다. 이것이 21 세기를위한혁명적이고페미니스트적인전략이다.

한단어로연마하고자하는노력하였지만, 그것의에대해서도의견이갈라졌다. 가부장제를“형제애적지배”라정의하는사람도 (파트만등), “자본주의적가부장제”라바라보는사람도 (마리아미스), 벨혹스처럼“백인우월주의적, 자본주의적, 가부장적사회체제”라바라보는사람도, 세일라로보텀처럼가부장제라는단어자체를잘못된것이라부정하는사람도있었다. 나는“가부장제”라는단어가부족하고부정확하기는하지만,(가부장제는문자적으로“아버지에의한지배”를뜻하기때문에) 어쨌건역사적틀을가진지속성을드러내며, 다행스럽게도보편적상수가아니다. 그리고“가부장제”라는단어는페미니스트들에의해여성의지위를묘사하는도구로여겨져왔고, 그렇게하기에는충분히유용한단어다.

< 래디컬페미니즘재정의하기 > 는분명히가부장제를납득이가는방식으로정의하는데에있어유의미한진전이다. 하지만나는이논쟁을혁명적이나키즘의방향으로끌어가고자한다. 그이름에곡꺾는것을피하면서, 아나키스트들이이해하지못하는페미니즘의내적특수성을명확히하는것역시중요하다. 우리는“래디컬페미니즘”의, 아나키즘적페미니즘이나사회주의적페미니즘과는분명히다른독자적역사를이해하지않고그것을재정의할수없다.

대부분의페미니즘문건들은사회에서여성의입지에관해상당히다른관점을제시한다. 보수적페미니즘은성에따른노동의분할은자연스러운것이며여성의예속적역할이“생물학적운명”이라바라본다. 자유주의적페미니즘은현재체제안에서, 혹은현“사회계약”안에서남녀의평등한입지를추구한다. 전통적마르크스주의페미니즘은사적영역에서의여성착취를무시하며, 궁극적으로가부장제의존재를부정한다. 래디컬페미니즘은전통적마르크스주의나사회주의의여성주의적관점부족에대응하여, 자유주의적페미니즘의개량주의에대응하여등장했다. 래디컬페미니스트들은가부장제가가장중요한압제라바라보고, 젠더와섹슈얼리티가문화적으로건설된사회적구조라는비판적관점을최초로제시했다. 이들은마르크스주의자들과달리게급사회가철폐된다해도여성에대한압제는남아있을것이라믿는다. 하지만래디컬페미니스트들은계급분석이결여되어있다. 이들은인종, 계급, 민족등을불문하고모든여성이동일한압제를겪는다말한다. 또한우리는아나키스트로써래디컬페미니즘이국가에대한비판이결여되어있다문제제기할수밖에없다. 일부래디컬페미니스트들은여성만으로이루어진정부가사회의만병통치약이될것이라제안한다. 또한이들의이데올로기는생물학적결정론에입각하여여성이본디남성보다우월하다바라보기도한다. 만약우리가정말로래디컬 (급진적) 페미니즘을재정의하고싶다면, 우리는이단어를사용하지말아야한다. “혁명적페미니즘”이라는단어가더적합할것이다.

사회주의적페미니즘은래디컬페미니즘과여성착취에대한계급분석을뒤편어내려한다. 이들은계급질서 (자본주의) 와가부장제가모두철폐되어야여성이비로소자유로워질것이라주장한다. 아나키즘적페미니즘은, 그대오가아주작기는하지만, 사회주의적페미니즘과유사한관점을가진다. 하지만이들은사회주의적관점에더하여위계와권위의총합인국가를여성억압의세번째열이라바라본다.

우리는가부장제, 자본주의, 국가가상호작용함으로써우리가철폐하고자하는역압들을만들어내는정확한과정을확인할필요가있다. 아나키즘적페미니즘은넓은의미로모든형태의지배에대한비판이다. 이는“다문화적페미니즘”의분석과 유사하지만더반자본주의적이며반국가주의적이다. 이렇게본다면, < 래디컬페미니즘재정의하기 > 는이미아나키스트들이가지고있는입장을다시강조한것이다. 혁명적실천은“지배의근절에집약되어야한다”는것말이다.

여러형태의지배가서로연결되어있다는분명한증거는, 해리스의에세이에서 벨룩스, 안젤라데이비스, 급진적젠더페지론자인안젤리나그림케를인용하고미국의역사적예시를제시한부분에서잘드러난다. 아나키스트들은간헐적으로인종, 계급, 성별이라는“삼중억압”에대한우리의비판점을제시하고자노력해왔다. 이를위해우리는“모든형태의”지배에대한전반적비판을, 특히자본주의와국가를노골적인비판을진행했다. 우리의논쟁은“래디컬페미니즘운동”을향한것이아니라, 이문제들을극복하는과정에서아나키즘운동이그실천의방법론을갱신해오지못한것에대한것이되어야한다.

< 래디컬페미니즘재정의하기 > 는이관점을견지하는것처럼보이지만, 전략적출발점으로백인우월주의를꺼내면서“억압의위계”를발굴해내버린다. 삼중억압이있는것은분명하고, 우리는가부장제나백인우월주의를단순한모순이나계급분석의후순위로둘수없다. 가부장제나백인우월주의는“자본의분할책동”으로가능하지만, 그렇다고자본에온전히의존적인것은아니다. 백인우월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가여성에대한억압에있어부차적인것은아니다. 우리는백인좌파들이가지고있는이끔찍한생각에지속적으로도전하고, 파멸을향해달려가는혁명적분석에서오류를제거해야한다. 하지만압제를바라보는데있어계급적시각을포기하는것은, 우리가보기에그저다문화적자유주의를모방하는것에불과하다. 벨룩스가말한것처럼“계급에근거한분석은내가작업을시작하는지점이다.”

< 래디컬페미니즘재정의하기 > 에서상당히가치가있는부분은그문건이북아메리카에만집중했다는것이다. 이러한분석방법론은흔한것은아니지만, 북아메리카의사회적조건은독특한것이고, 그곳에서혁명을준비하는데있어유럽이나제3세계의예시를드는데는도움이되지않는다. 해리스의인종분석과백인우월주의에대한투쟁을혁명의기폭제로사용하자는분석은이입장에기인하고, 그렇기에훌륭한출발점이된다. 일부백인아나키스트들과백인좌파들은흑/백문제가노력없이스스로풀릴것을기도한다. 미국에서의혁명적투쟁은진정한연대와원칙적동맹, 확고한장기적작업을필요로하고, 백인혁명가들과백인아나키스트들이이분할을극복할필요가있다. 이는백인혁명적페미니스트들에게도마찬가지이며, 이것이야말로해리스가중점을두고있는부분이다. 하지만해리스는그와중에도혁명적페미니즘을백인우월주의를공격하는협소한“전략”으로재정의한다. 물론백인우월주의에대한공격이페미니스트의제의부분이고한구획을차지할필요성이있는것은분명하다. 하지만혁명적페미니즘의모든영역을백인우월

주의에대한것으로재정의하는것은사회에서여성에대한억압이어떻게가능하는지를분석하고, 무엇보다그것을어떻게극복할지에대한유미한토론을불러일으키지못한다. 혁명은하나의압제에집중하는것만으로이루어질수없다. 그리고‘진정한’급진적페미니즘이말해야하는것은이와같다. 혁명의출발점은여러가지가있고, 혁명적페미니스트들이역사로부터배운것은, 여성착취의문제가이중가장먼저해대된다는것이다.

혁명적페미니즘과이로부터아나키스트들이배울수있는교훈을재점검하는 시도에서, 가장필요하다말할수있는것은계급적분석을유지하는것이다. 해리스는“페미니즘은더이상라이프스타일로써의선택이될수없고, 정치적책무로받아들여져야한다. 이정치적책무에집중하고, 억압에대한저항에집중하는것이우리에게혁명적실천이되고, 페미니즘에대한협소하고진부한관점의나락을피할수있게할것”이라말한다. < 래디컬페미니즘재정의하기 > 는페미니즘을그라이프스타일에대한틀로부터건져내고자한다. 하지만교육, 언어, (자유주의적반인종주의의고통의원인이되고있는) 심리학과같은문화적맥락에착한서구페미니즘은, 어떠한문화적진보보다더핵심적일경제적생산관계에대한이해를결여하고있다. 그렇다고해서페미니즘의목적을여성에대해가해지는억압에대한분석과무관한영역까지확장시키는방식으로는페미니즘을그틀로부터건져낼수없다. 페미니스트운동의강점은, 최소한혁명적페미니즘의강점은, 그자기주도성으로부터나와야한다. 우리가서구페미니즘의역사로부터배울수있는교훈은다음과같다. 남성은, 우리의동지들이라할지라도, 우리에게의바르게요청한다고해서우리에게존엄과자유를줘어주지않는다. 그목적을더큰대의에포괄시키는여성운동은계급투쟁, 반식민주의, 민족투쟁의통일전선속에서배신당할것이다. 알제리, 쿠바, 베트남, 중국, 소련에서진행된반식민주의적이고혁명적이었던투쟁들을보라. 반식민주의나혁명이성공한경우라하더라도, 그투쟁들이여성의투쟁으로부터무엇을얻었건간에, 여성은방편적으로경제를재편할필요성을들어“부차적”영역에서착취당하거나, “가족으로돌려보내졌다.”

물질적생산관계에구체적변혁이없는한, 성별관계에대한의식수준이아무리높아지더라도, 그의식수준은경제적현실의무게를견디지못한다. “생산”이라는단어가불쾌하다면, 이를사적영역, 즉가족안에서여성에게이루어지는노동을포함하는것으로, 로보텀이말하는바“섹슈얼리티를통한자기재생산”을포괄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문화적, 사회적인식화와공적영역과사적영역에관한사회적분할과노동에있어서의성별분할에대한공격이동시에이루어질때에야여성에게무언가를줘어주는혁명적변혁이가능할것이다.

나는구체적행동의방법론으로“삼중억압”이교차하는지점에대해집중하여이교차점을드러내는방식을대안으로제시한다. 반빈곤운동의영역은성적억압과인종적억압이주거, 노동, 복지의문제에도무엇처럼좋은예시가될것이다. 여성복지에있어최근입법된결혼장려금법, 공공주택사업에서미혼여성을제약하는법규는모두가장끔찍하고가장인종차별적인방식으로가부장제를드러내고